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2008. 10. 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08. 10. 27(월)	담당자	류건식 재무연구실장
홍보담당	김 진 역 선임(368-4413)	연락처	02-368-4431 총 2매

제 목 : 기업의 바람직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과제

퇴직연금 특성 고려시, 정성평가(전문성,서비스,컨설팅)위주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필요

사용자(기업)은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과 같은 단기 성과지표보다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기업의 바람직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과제』라는 테마진단(보험동향가을호)을 작성한 보험연구원(원장:나동민)의 류건식 재무연구실장은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과도한 파생상품 및 주식형 펀드 투자 등에 의한 수익률 성과에 기초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칫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기업의 경영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에 맞게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선정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류건식 재무연구실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단순히 수익률이 얼마나 높게 실현되고 있는가,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얼마나 저렴한가 등 과거성과에 기초한 정량적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단기 변동성이 큰 수익률 등과 같은 정량적 평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능력 및 운용체제의 질 등과 같은 정성적 평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미국 등 선진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분류하고, 이에 기초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를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초기 단계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자의적인 판단능력 등에 의존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간 퇴직연금 과열유치경쟁 영향 등으로 수익 편향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도 악역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류건식 재무연구실장은 적정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퇴직연금운용과 상품특성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교육강화, 기업의 퇴직연금 사업자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전환 등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정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자산운용능력, 서비스, 건전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이 제도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